논문

**한국 근대 주거 및 취락의 공간적 질서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Layout of Modern Settlements in Hwangjon Korea

이현희*/ Lee, Hyun-Hee

Abstract

In this study, we surveyed historical housing settlements of Hwangjon in Bonghwa - a clan village in Youngnam district which was formed in the Chosun Dynasty. We observe the relatioships among the spatial layout of clan villages, the water flows and the family hierarchies as follows: (1) when a clan village was initially formed, the water flow, which is the phylosophical foundation of Poong Soo,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determining the original location; (2) as villages prosper, the water flow and the family hierarchy still played an im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following geological locations; (3) in modern age, however, the water flow and the family hierarchy lost the role in determining the gelological locations; (4) consequently, in present days, each household becomes isolated from the village. Reflecting on these observations, for villages to be maintained, we conclude that we need novel practical and cohesive village forming drives that can replace the water flows and the family hierarchy in the past.

키워드 : 동족마을, 황전, 근대 주거, 공간질서체계, 수계, 위계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생활의 영위장소라는 점에서 보면 현대의 거주지와 과거의 거주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건축기술의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거주지 자체는 물론 그에 대한 가치관이 급변하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 고층화된 현대의 시가지와 그 내부의 아파트는 서구적 생활관습과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채색된 현대적 생활로 분류되면서 전통적인 거주지와의 괴리를 심화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주거를 심층적으로 보면, 설비면 등의 개선에 의해 발전되어 가는 부분과 전통적 생활과 관습에 근거하면서 적응하는 부분이 의연히 자리하고 있다. 특히 후자인 전통적인 부분의 지속은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평가 절하된 한국의 주거관을 재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의 주거환경의 동향을 규명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이다.

한편 전통적 주거관의 해석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도시, 취락, 주택, 사회제도 등등 개별적인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거환경은 주거내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주거내부와 외부공간 간의 상호관계이므로 그 주거환경의 주체인 인간의 사고, 가치, 생활에 의해 주도되고 평가되어야 하는 당연성이 무시된 채 기능적, 양식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환경체로서 취락과 주거공간의 질서체계를 해석하고자 공간분석에 대한 건축 계획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면서 사회 문화적 시각, 그 중에서도 문화의 유입과 이식과정에서 개체주거문화가 변모되어 간다고 주장하는 전파론에 근거하여 주거문화를 해석하고자 한다. 즉 고유한 특성이 함축된 주거문화를 형성한 한국의 취락과 주거공간을 대상으로 역사적인 정주거점으로 형성되어 온 취락과 주거공간이 형성되는 질서체계를 규명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현대 주거공간의 해석 및 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목적

조선시대는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업사회이면서 유교적 사고가 생활의 규범과 기치기준이 되던 사회이었으며, 유교에 의한 내재적 질서가 지연공동체의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 면에서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同族體의 형성은 당연한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혈연관계에 근거한 동족체의 집단주거지인 동족마을은 入鄕祖에서 시작하여 宗家, 枝家, 本家, 分家 등으로 분파 해 가며 마을의 규모가 커져간다. 마을에는 집단간의 위계질서가 형성된다. 그 위계가 마을의 공간구성이나 주거공간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은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편 농업중심사회에서 마을의 공동공간과 영역은 생산과 관련된 중요한 마을의 공간질서이면서 각 주호별로 형성되는 공간질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적인 정주거점으로 형성되어 온 취락과 주거공간이 형성되는 질서체계를 규명하여 근대 취락 및 주거공간의 질서체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계, 가계 내부의 위계(서열)질서와 마을의 공동공간, 영역과의 관계를 해석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현대 주거공간의

* 정회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전임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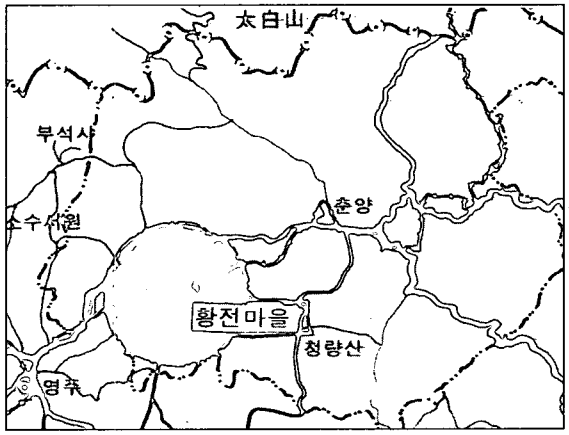
** 이 논문은 과학재단 핵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해석 및 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지향한다.

1-3. 연구방법 및 조사의 내용

연구는 과거에 행해졌던 실태조사 및 기록 등의 데이터를 수집, 재정리하여 「전통적인 취락과 주거공간」의 질서체계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잔존하는 사례의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근대적 취락과 주거공간」으로 설정 시켜 가는 수법을 사용한다. 즉 개별적 대상의 특성을 시대적 상황 위에서 비교함으로써 한국근대의 취락과 주거공간의 보편성으로 정리한다.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는 조선중기에 형성된 동족마을로서 비교적 최근까지 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일차적으로 도심의 다소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마을의 규모가 변화하지 않은 채 산업화, 근대화를 맞고 있는 봉화군 거촌2리 황전마을로 선정하였다. 봉화군 일대에는 황전마을 이외에도 해미마을, 양지마을, 음지마을 등 다수의 동족마을이 있으나 황전마을은 공간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수계상황이 비교적 파악하기 용이하여 1차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황전마을의 실태조사는 토지, 주택, 운영의 관점에서 취락과 주거공간의 질서 읽기를 목적으로 1995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2차 조사는 1996년 9월 7일부터 8일 까지, 3차 조사는 1997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1,2차 조사시에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영역과 입지선정, 토지분할과 주택배치, 도로와의 관계와 입구배치, 토지분할과 도로패턴, 공동시설의 분포와 이용사항이 조사되었고,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의 실측 및 증개축 사항, 가족구성과 생활실태, 경작상태와 토지소유상황, 마을 주민 특히 촌로를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새마을운동 이전, 현재를 시점으로 마을의 공동행사(동신제, 기제, 시제 등)의 상황과 가족관계, 가사노동, 성생활, 교분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3차 조사는 족보에 의한 마을 주민의 관계 조사, 소유권 이전 및 사용에 관한 조사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실측조사, 관찰조사, 면담조사로 진행되었다.〈그림1〉



〈그림 1〉 봉화의 위치

2. 황전마을의 개요

2-1. 황전마을의 연혁

봉화의 형성 초기 역사에 대한 문헌자료는 거의 없어 상고할 수는 없으나 韓의 小國이었던 기저국의 영역이었다가 신라시대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고사마현古斯馬縣이라는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었다. 소縣 아래에는 향, 소, 부곡, 방, 촌 등이 있었으나 봉화지역에는 鄕과 部曲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봉화일대는 고구려와 신라가 영토분쟁이 심하던 태백산 남측기슭에 위치하므로 이 지역의 부곡은 고구려와의 국경지대에서 빈번히 발생한 영토분쟁 즉 羅麗戰鬪에서 생겨나는 고구려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된 것으로 생각된다.(봉화문화 pp30) 집촌이 형성되던 시기에는 옥마현玉馬縣의 행정명으로 개칭되었다가 고려 현종때 봉성현鳳城縣으로 개칭된 후, 고려 공양왕(1389)부터 현재의 奉化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다. 봉화의 일부 지역인 조사대상마을은 행정명으로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거촌2리이지만 황전마을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황전마을이라는 명칭은 주변지역의 토양에 황토성분이 많아 색이 누렇다고 하여 붙여졌으며 조선말기까지 사용된 마을이름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정리 과정에서 巨村으로 개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거촌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주변지역에 비해 거부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김윤동 촌로는 전한다(1995년8월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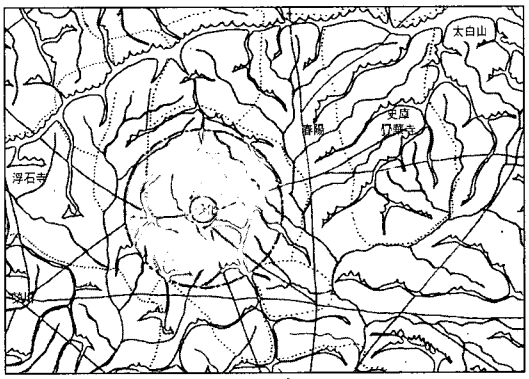
2-2. 의성 김씨 동족마을로서의 황전마을 형성

황전마을이 의성 김씨의 동족마을로 형성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조선중기의 불안한 사회에서 중앙기관에서 떨어진 산간마을에 위치하여 자손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였던 점이다. 둘째는 풍수지리에 근거한 것으로 마을은 「금계포란형金鷄包卵型(닭이 알을 품은 형세)」의 명당이었으며, 특히 마을입구에 있는 3개의 도암이 3인의 정승 배출을 예언하는 것으로 믿어졌던 점으로 입신, 출세지향의 가치관과 부합된 것이다. 그러나 황전마을에는 이미 영양 남씨가 거주하고 있었다. 기원은 정확하지 않으나 의성 김씨가 입향 하기 전까지는 영양 남씨의 동족마을이었다. 16세기(1584년경)에 의성 김씨 22대 김흠金欽[1]이 사냥을 나왔다가 쫓기던 꿩을 숨겨주던 마을처자의 자비로운 성품과 지혜의 예사롭지 않음에 반하여 혼인을 계기로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다. 원래 이 마을에는 외가가 번성할 것이 라고 믿어지고 있어서 영양 남씨는 혼인에 많은 주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의성 김씨 일가는 김흠金欽과 그의 孫 김종걸金宗傑로 이어지는 3회 연속의 과거급제를 통하여 획득한 권력을 이용하여, 전후의 흉흉한 세상에서 자손을 보호하고자 지세 좋은 지역을 거촌리 의성 김씨의 거주지[2]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영양 남씨의 동족마을이 의성 김씨 문중으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기까지는 약 30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進士 남구수南龜壽가 건립한 영양 남씨의 宗宅마저 현재의 소유주인 金東明씨의 10대조인 黃坡 金宗 傑의 조부가 장인으로부터 이어받아 거촌리 거주 의성김씨의 宗宅으로 내려오고 있다. 지금의 주손胄孫인 金星奎씨는 黃坡 金宗傑의 12世孫이다. 현재 영양 남씨의 흔적은 서측 뒷

1)黃田 義城 金氏의 入鄕祖, 文武 兩科에 及第하여 通訓大夫의 관직을 받았으며, 訓練院 壽事를 지냈음. 의성 김씨 족보에서 확인.

2)義城 金氏의 전체 종가와 별도로 황전 일대에 자리잡은 의성 김씨 일족을 지칭.

산에 남은 몇구의 봉분에 불과하다.



〈그림 2〉 봉화의 지세

2-3. 황전마을의 배치와 풍속

황전마을은 사면이 300미터 내지는 330미터 높이의 산으로 둘러싸인 해발 230미터 분지형 입지이다. 主山인 달봉장, 案山인 九峰山, 좌청룡(동산지)과 우백호격의 낮은 야산으로 둘러 싸인 金鷄包卵型의 지세이다.[3]

마을입구에는 하당신에 해당하는 남신과 여신의 석상으로 구성된 洞神이 있었고, 석상을 중심으로 성황이 조성되었다.[4] 그 성황은 일제강점기까지 통행이 빈번하였던 영주와 선돌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여 마을 하당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변은 약간의 소나무숲을 조성하여 「남기」[5]라고 불렀다. 그 성황은 일제강점기까지 통행이 빈번하였던 영주와 선돌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여 마을 하당신의 역할을 담당하였다.[6] 그러나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매립되고 철거되고 현재는 석단 일부와 몇 그루의 나무가 남아 있을 뿐이다. 현재 동신洞神을 지나는 길은 농로로 남아있는 반면에 동신과 마을 사이를 지나는 안동방면의 소로는 왕복 2차선의 도로로 확장되어 결과적으로 마을의 영역이 이분되는 결과가 되었다. 동신지洞神地는 여전히「남기」로 불리면서 마을의 화수계, 초연, 풋구 등의 행사지로 이용되고 있다.

3)조선시대에는 학문과 벼슬에 뜻을 둔 사람이 서재에 닭그림을 걸어두었다. 닭은 입신출세와 부귀공명, 새로운 질서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특히 닭머리의 볏은 冠을 나타내므로 벼슬을 얻는 것과 같은 뜻을 지녔다. 그 중에서도 알품은 닭형은 풍요를 상징한다.(김광언, 1986)

4)토지의 안태, 부귀, 안락을 수호하는 성황신은 서낭이라고도 하며, 지역에 따라 동신(洞神), 성황(城隍), 당(堂)으로 불린다. 성황에 대한 기원은 중국 고대의 성지신 또는 성곽신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 국육조시대부터 城隍이 송대에 크게 유행하였다고 하나 우리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다. 황전마을은 마을 앞의 남기(나무, 樹 :森林)에 동신이라하여 男神과 女神의 석성황(石城隍)의 입석과 그 아래 석축을 만들고, 왼새끼를 감아 새끼 사이에 한지를 올려서 기워 부정한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였다.

5)마을입구의 조그만 숲 또는 몇그루의 나무는 거리신이 모셔지는 곳으로 「숲거리」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이 일대에서는 사용되는 「남기」는 경상도 방언으로 나무(木) 또는 숲에 해당한다.

6) 洞神은 남신과 여신의 석상과 당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의 입구에 위치하였다. 동신은 남신 여신의 석상을 중심으로 성황을 조성하였고, 마을의 도입부에는 솟대, 장승 등이 놓이는 것이 일반적인 호남지방의 취락구성에 비하여 경북지방에서는 동신이 보편적이다.

2-4. 황전마을의 현황

1584년경부터 의성 김씨의 동족마을로 전환된 황전마을은 현재까지 동족마을로 분류하기 에 충분하다. 1997년 현재 황전마을에는 46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의성김씨가 아닌 가구는 모두 9가구이다. 하지만 그 중 5가구는 외가 등의 친인척관계이며 의성 김씨와 무관한 가구는 물과 4가구에 불과하다. 더욱이 타성의 거주가 시작된 것도 90년대에 들어 마을 어귀에 조립공장이 생기면서 시작된 것이며, 임대는 하더라도 주택소유권에 대한 집착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황전마을에서 의성 김씨 소유가 아닌 주택은 3호이다.

낮은 언덕과 산으로 둘러 싸여 마을 밖에서는 마을 내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들어앉은 황전마을에는 새마을회관 1동, 사당1동, 정자1동 외에 주택 53호가 있다. 주택은 외지로 나가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노인층이 타계한 후 자손으로 계승되지 않아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현재는 7호가 비어 있다. 조립공장에 다니는 외지인이 살고 있는 주택도 공가였었다고 한다. 마을의 전체 규모는 광복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사하며, 변화된 것은 새마을회관과 15호 내외의 주택이 기존의 자리에 재건축한 정도이다. 1970년대까지는 재건축한 주택도 배치위치와 형태의 변화 없이 재료를 바꾸고 규모를 다소 확장시키는 정도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재건축된 주택은 집터를 이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마을 주민은 약 140명 정도이며, 자녀들은 봉황, 영주, 대구, 부산, 서울 등에서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주민의 숫자는 120명 내외이다(표1).

3. 황전마을의 풍수관2과 공동공간의 형성

3-1. 지세유지 및 보완을 위한 마을공간의 구성

마을의 도입부에는 남성성기 형상인 3개의 도암陶岩이 있고 그 도암은 3인의 정승 배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어졌다. 이 믿음은 곧 마을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선 마을에 타성에 거주하다가 인물로 배출될 것을 우려하여 마을 내에는 타성의 거주를 금지시킨 것이며, 둘째는 우물 파는 것을 금지시킨 점이다. 우물은 마을에서 혈맥과 같은 곳에서 물을 찾는 것이며, 그것은 곧 닭이 자리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지세의 마을에서 닭의 피를 빠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고, 닭의 피를 뽑아 지세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황전마을의 구성요소 중, 물은 두 개의 형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流水로서 주산인 달봉장 방향에서 흘러와 마을 중앙을 통과한다. 이 물은 각 주호 전면을 흐르면서 생활용수 또는 소화수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둘째는 流水를 집수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도암지陶岩池이다. 도암지는 입향 초기에 빈발하였던 황전마을 화재의 원인은 남쪽 각화산覺華山과 마을의 관계에 있다고 믿어졌고, 그 이유는 마을에서 보이는 지세가 활화산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졌다. 그 화산을 잠재우기 위해 웃못(현재의 마을회관 자리)과 아랫못을 조성한 것이 도암지이고, 그 이후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68세 金允東옹, 1995년 8월 4일). 流水의 흐름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연못은 마을내부를 흐르던 도랑이 현재의 공동우물 위치에

〈표 1〉 봉화군 거촌리 황전마을 조사가옥 리스트(1997년 7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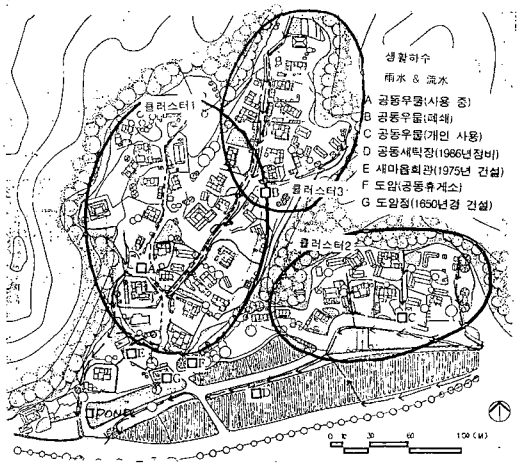
조사번호	세대주	주 소	본 관	입향과의 관계	지붕 재료(형태)	건축기록	기타
1	金○○	거촌2리 705번지	의성 김씨 33代손	19寸	슬레이트(팔작)/시멘트기와(개량형)		집 뒤에 영양남씨의 묘가 있다.
2	김○○	거촌2리 678번지	의성 김씨 34代손	10寸	슬레이트(팔작)	약 100년전. 96년 재건축	재건축 전은 토담집
3	金○○	거촌2리 680번지	의성 김씨 32代손	16寸	슬레이트기와(팔작)		7-2에 사시는 분과 형제간
4	金○○	거촌2리 703번지	의성 김씨 32代손		슬레이트(팔작)		호주
5	金○○	거촌2리 705번지	의성 김씨 32代손	16寸	슬레이트(팔작)		현재 진세중
6	李○九	거촌2리 503번지		외손목의 친척	슬레이트	5년 전 콘크리트로 건립	5-2소유
6-1	金○○	거촌2리 703번지	의성 김씨 32代	16寸	기와(팔작)		시멘트벽체, 2명 거주
7	건물명 ○○○	거촌2리 503번지	의성 김씨 10代		기와(박공)		제사지내던 곳 92년부터 빌문중 소유
7-1	金○○	거촌2리 503번지	의성 김씨 33代	17寸	슬레이트(팔작)	2~300년전	7-2의 子
7-2	金○○	거촌2리 503번지	의성 김씨 32代	16寸	슬레이트(팔작)	약 100년전	3의 형님
8	金○○	거촌2리 693번지	의성 김씨 34代	門族 종가	전통기와(팔작)	540년전 건립	90년 개조 지방 문화재
9	金○○	거촌2리 504번지	의성 김씨 32代	16寸	슬레이트(팔작)	약2~300년 정도	
10	金○一	거촌2리 510번지	의성 김씨 32代	16寸	슬레이트(팔작)	약2~300년 정도. 이제채는 65년 재건축	
11	金○○	거촌2리 507번지	의성 김씨 32代	16寸	슬레이트(팔작)		호주
12	金○大	거촌2리	의성 김씨 32代	14寸	슬레이트(팔작)	60년전에 건립	
13	金○○	거촌2리 706번지	삼척 김씨	웃대어른의 회가	슬레이트(팔작)		초가
14	새마을 회관				슬레이트(팔작)	1975년 건설	황전기계화 영농권. 마을회관
14-1	건물명 ○○주				전통기와(팔작)	1650년 건립	정자
15	金○○	거촌2리 754번지	의성 김씨 33代	15寸	슬레이트(박공)	84년 양육 건립	
16	金○○	거촌2리 753번지	의성 김씨 32代	16寸	평슬레브	93년 양육 건립	
17	권영원				슬레이트(팔작)		임대
18	金○○		의성 김씨 33代	15寸	평슬레브+부분시멘트기와	양육 93년도에 건립	
19	金○○	거촌2리 522번지	의성 김씨 32代		슬레이트기와(팔작)		봉화군 문화원장
20	金○○	거촌2리 670번지	의성 김씨 33代	15寸	평슬레브	13년전에 양육으로 지음	
21	金○大		의성 김씨 32代	14寸	전통기와(팔작)		호주
22	金○○	거촌2리 518번지	의성 김씨 32代	14寸	전통기와(팔작)	193기년 건립, 사당은 100년이상	3명 거주
23	金○○	거촌2리 513번지	의성 김씨 33代	9寸	기와(팔작)/스레이트(박공)	원부는 74년 개조	
24	金○○	거촌2리 513번지	의성 김씨 33代	10寸	슬레이트(팔작)	50년 이상	
25	이필자		전성 이씨	먼친척	슬레이트(팔작)	약75년전	
26	金○○	거촌2리 693번지	의성 김씨 32代	14寸	기와(팔작)	50년부터 거주 옛백년전 건립	
27	金○○	거촌2리 692번지	의성 김씨 32代	16寸	시멘트기와(팔작)		
28	金○三	거촌2리 691번지	의성 김씨 32代	16寸	기와(팔작)	75년 건축	
29	金○○	거촌2리 683번지	의성 김씨 31代	17寸	기와(팔작)	75년 보수	
30	金○○	거촌2리 705번지	의성 김씨 32代	18寸	슬레이트(박공)	88년 보수	29의 子 4명 거주
31	이갑덕(입자)	거촌2리 413번지		무	슬레이트(박공)	85년 이주	
32	金○○	거촌2리 680번지	의성 김씨 34代	14寸	평슬레브+부분시멘트기와	40년이상 94년 재건축	모권일체 거주
33	金○○	거촌2리 703번지	의성 김씨 32代	18寸	기와(팔작)	69년 재건축	
34	金○○	거촌2리 513번지	의성 김씨 32代	16寸	기와(팔작)	67년 재건축	
35	金○○	거촌2리 673번지	의성 김씨 33代	15寸	슬레이트(박공)	86년 재건축	
36	金○○	거촌2리 676번지	의성 김씨 ?代		기와(팔작)	30년전부터 거주 5개월 전 개조	100년이상
37	金○○	거촌2리 683번지	의성 김씨 33代	15寸	기와(팔작)		74년 재건축
38	金○○	거촌2리 631번지	김해 김씨		슬레이트(팔작)	30년 이상	65년부터 거주
39	金○○	거촌2리 687번지	의성 김씨 33代		슬레이트(팔작)		
40	朴○ (거주자는 오씨 부인)	거촌2리 685번지			슬레이트(팔작)		31번 이갑덕씨 소유
41					시멘트 기와(팔작)		번집. 48번 원치대씨 소유
42	김대식	거촌2리 527번지	김해 김씨	무	슬레이트(팔작)		3명 거주
43	유재천	거촌2리 531번지	전주 유씨	외가	시멘트 기와(팔작)		
44	임경환			무	시멘트 기와(팔작)		전주유씨 유승갑씨 소유
45	金○○	거촌2리 533번지	의성 김씨 31代	14寸	평슬레브+부분 시멘트기와	1년전 재건축	
46	金○○	거촌2리 532번지	의성 김씨 32代	14寸	시멘트 기와(팔작)	100년이상	
47	金○○	거촌2리 539번지	의성 김씨 32代	14寸	구운 기와(팔작)	68년 재건축	
48	원치대	거촌2리 533번지		외가친척	시멘트 기와(팔작)	20년전 재건축	
49	金○○	거촌2리 539번지	의성 김씨 31代	12寸	시멘트 기와(팔작)	70년전 건축	
50	金○○	거촌2리	의성 김씨 32代	14寸	시멘트 기와(팔작)		호주
51	金○○	거촌2리	의성 김씨 33代	15寸	슬레이트(팔작)		호주
52	金○○	거촌2리	의성 김씨 32代	14寸	슬레이트(팔작)		
53	金○○	거촌2리	의성 김씨 33代	14寸	슬레이트(팔작)		호주

서 합쳐지는 수계를 이용하여 조성된 것이며, 이는 풍수지리에서 언급되는 「壓勝」의 방법이었다. 즉 상극인 五行의 불과 물의 관계에 근거하여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7]

3-2. 내부질서유지를 위한 마을 영역의 구분

7)문정희 외, 한국의 정주공간형태와 도시 및 도시계획에 관한연구, 대한도시계획학회지, 25-2 p.196, 1990

황전마을의 배치와 流水, 雨水, 생활하수의 흐름을 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세 갈래의 물줄기는 마을 내의 세 도로와 나란히 흐르고 있다. 宗宅의 전면을 지나는 길과 유수는 도암지까지 이어진다. 도중에 있는 우물은 마을 공동의 식수로 사용되었으며 주변은 주민의 집회 공간이었다. 이 우물의 위치와 길의 형태, 주민의 기억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마을은 크게 세 개의 클러스터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종택을 포함하는 클러스터1은 의성 김씨의 동족마을로 형성되던 초기부터의 영역으로 胄孫 系統의 분파이다(의성김씨 족보에서 확인). 반면에 우측의 클러스터2는 서자계열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주민들간에는 「신촌」으로 불리며 별개의 마을로 의식되는 부분이 많다. 주손 계통의 클러스터1에 비해 건설시기가 늦으며 건축상태가 조잡하고 규모도 작은 편이다. 이에 비해 상부에 위치한 클러스터3은 광복 전후의 신분붕괴로 독립생활을 하게 된 사용인들이 형성한 클러스터이다. 마을이 확장될 수 있는 방향이 한정되므로 상부의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었으나 식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주호 간의 영역이 분명하지 않고 주거공간과 작업공간이 혼재되어 있다. 클러스터3에 식수가 들어 온 것은 각 주호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게 시작한 1990년경 후반부터이다. 동족마을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마을의 영역이 구분되었으며, 수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기타:의성김씨의 선산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주변 일대의 산이 문중소유이므로 특별히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명당을 찾아 매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은 마을을 둘러싼 산들과 마을의 관계를 폐쇄적인 것으로 의식하지 않고 자기문 중의 소유감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보인다. 따라서 주변 산 일대가 마을의 공동공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3〉 황전마을의 배치평면도

3-3. 유교적 사고의 도입과 마을 공용공간의 형성

1650년경 조선 효종 때의 문신 黃坡 金宗傑이 아랫못 변에 건축한 「도암정陶巖亭」은 당 대 유림들과 교류하며 시사공론과 시영詩詠을 즐기던 정자이다. 정면3간, 측면2간의 홑처마에 팔작지붕의 다락식 건물로 연못의 축대에 바짝 붙여서 주초석 위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소루수장小累修粧으로 간결하게 꾸몄다. 평면은 전면한칸을 누마루로 하고 후면은 가운데 한 칸은 마루, 좌우에 온돌방을 두었다. 정자의 전면인 아랫못에는 소나무를 심은 인공섬인 당주當洲가 있고 정자 우측에 큰바위와 노송이 있다. 이 정자는 유림의 풍류 외에도 문중의 교류와 마을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 관습은 현재까지 계속되어 마을회의는 물론 특히 여름철의 친목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녀자와 젊은 층의 출입은 자유롭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도암정의 건축에 따른 찬반은 현재까지 분분하다. 풍수관에 따르면, 황전마을은 정승이 배출될 지세임에도 불구하고 도암정의 건축이 닭의 머리에 정자를 축조하여 누르는 격이 되어 현재까지 인물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반면에 유교적 풍유에 따르면 웃어른의 향유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서 시세를 논하고 마을의 중대사를 의논할 수 있는 공동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3-4. 근대적 사고의 도입과 마을 공용공간의 형성

① 새마을회관 : 1971년경에 시작된 새마을사업은 보수적이고 봉건적이었던 황전마을에서 수용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신洞神을 철거하면서 빚어진 마을주민간의 갈등은 동족마을의 위계를 위협할 수준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행정권을 기반으로 새마을 사업은 강행되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사업 중반에 시행된 마을회관의 신축이었다. 마을회관은 공지가 없는 상태인 것을 감안하여 웃못 위치가 부지로 선정되었다. '웃못은 수계상태가 불량하며 벌레의 온상지가 되는 등 위생적이지 못하므로 매립되는 것이 근대적이다'라고 설득하였다고 하나 근본적으로는 공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을회관은 약 30평규모의 1층 슬레트지부에 콘크리트 블럭조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마을회관은 현재까지도 가을철의 농작물건조와 마을주민의 주차에 이용되는 정도이고, 소집회는 여전히 도암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방송시설과 공부방이 설치되었으나 이용도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② 공동우물 : 약5년전까지 주호별로 우물을 파는 것은 터부시되었으므로 3곳의 공동우물은 여인들의 주요한 집회공간이 되었다. 우물의 위치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 형성된 마을영역과 비교적 후기에 형성된 '신촌' 영역, 상부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 길에 면한 우물이 가장 빈번히 이용되었으며 마을의 중심이었다. 현재 지하급수원을 갖고 있지 않은 주호는 2호에 불과하다. 현재는 우물주변이 이동 차량판매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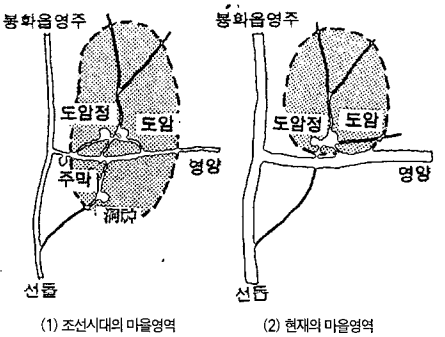
③ 공동세탁장 : 1970년경까지 마을내부의 길은 3자 내외였고, 그 옆으로 2자 정도의 '도랑'이 있어서 雨水와 생활하수를 연못으로 흘려보냈다. 당시 집 앞 도랑에서 간단한 세탁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가장 빈번히 이용되었던 곳은 지금도 공동 세탁장이 있는 곳이다. 1986년경에 지금의 상태로 정비되었으며, 가가호호에 펌프를 설치하면서 이용도가 떨어지기는 했으나 현재도 주민의 허드레세탁 등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7-2주택의 할머니는 지금도 공동 세탁장에서 모든 세탁을 하고 있다.

④ 상점과 그 주변 : 마을에는 간단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상점 1개소가 있다. 상점이라고는 하나 마당 한켠에 약 1.5평 정도를 증축하여 몇가지 과자와 면류를 놓아둔 정도이다. 대부분의 식품은 자급자족하는 편이며, 그 외의 쇼핑은 5일장으로 서는 봉화장으로 가기 때문에 상점이 공동공간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낮에는 간헐적으로 상점 앞 마당에 3-4인이 모인다.

3-5. 황전마을 공간구성의 특성

황전마을은 유기적 구성에 의해 형성된 동족마을로서 동서 약 400미터 남북 약 350미터에 걸쳐 거주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주진입 도로는 현재의 915번 국도인 마을의 진입로에서 들어와 중심이 되는 도암정을 기점으로 공동우물 위치까지의 진입, 그곳에서 가지형으로 이분 되는 남북축의 길이며, 이상의 도로는 새마을운동으로 좌우의 시내를 복개하면서 확장 포장 된 것이다. 복개공사 이전의 상황은 종가를 포함한 극히 일부의 주택에서만 담을 설치하고 있었고 약 3자 너비의 길을 따라 하수도 역할도 담당한 도랑이 흐르고 있었다. 도로포장을 기점으로 담이 축조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부분의 주택에 축조되어 있다. 마을내부에는 안길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적고, 세갈래의 길에 직접 대문이 면하고 있다. 대문은 남향, 동향, 서향으로, 주택은 좌청룡과 우백호의 능선에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1960년 이후에 신축한 8戶의 경우에도 向과 위치의 변화는 없다. 거주지역 외부의 도로는 마을 어귀를 지나던 농로가 2차선으로 확장되고 포장되면서 주도로가 되고,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던 동신(洞神)을 지나던 길은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마을의 영역이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도암정과 도암, 주변의 느티나무가 진입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그림4〉.

자손의 번영과 영화를 바라며 당시의 풍수관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형성되었던 황전마을에서 도암정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미결상태이다. 그러나 마을전역에 남아있던 관념은 3,4년 전까지도 유지되어 수계를 지배하였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타성의 거주를 막아오던 터부도 굳건히 유지되고 있었다. 동신에 대한 민속신앙이 무속으로 단정되어 1970년대에 소멸되었고, 일제강점기에 도로위계가 전환되어 마을의 공간질서가 재구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도암과 명당에 대한 관념은 자손의 영화와 관련되어 굳건히 유지되고 있었으며, 마을공간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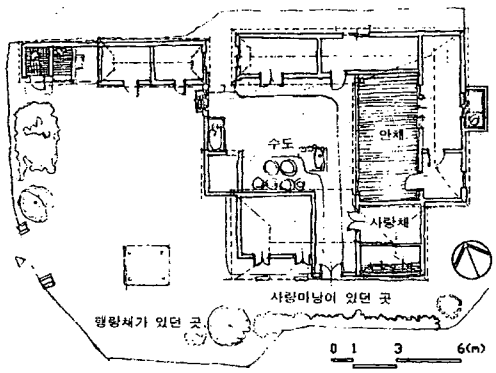
(1) 조선시대의 마을영역 (2) 현재의 마을영역

〈그림 2〉 봉화의 지세

4. 황전마을의 공간질서 변화와 생활공간의 변화

5년전까지 황전마을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금지한 결과 마을에 있던 3곳의 공동우물은 중요한 식수 및 생활용수의 공급원이었다. 1920년대까지 물을 긷는 일은 여인들의 가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丑時나 寅時까지 계속해야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1996년 68세 강씨부인과의 인터뷰). 물을 길어야 하는 등의 갖가지 가사노동으로 여성의 노동량이 많았던 1960년대까지 우물 주변은 간과할 수 없는 마을의 공동생활 영역이었으며 여인들로 한정된 교류 관계가 형성되는 장이기도 하였다.

한편 세탁은 하천에서 이루어졌다. 복개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1960년대말까지는 집앞에 흐르던 작은 하천에서 이루어지던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의 경우는 마을 앞을 흐르는 약간 큰 하천이 마을의 세탁장이었다. 그러나 1992년경부터 가가호호 지하수를 파기 시작하여 물과 관련된 생활영역은 변화하였다. 현재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것은 전기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펌핑하여 수도의 형태로 공급하는 형태이다. 1997년 7월 현재 전체 72호중에서 지하 급수원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는 단 2호에 불과하다. 공동우물과 공동세탁장 주변에 형성되어 있던 생활영역은 각 주호의 마당 한켠 또는 안채 마당의 한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림5의 평면은 집안에 지하급수원이 마련되면서 안채마당이 세탁, 식사준비, 세면의 장소가 되고, 필요성을 상실한 행랑채가 철거되고 부엌, 역실, 변소 등이 증축되어 완전한 「口」형의 배치형태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외부에 개방적이던 사랑채까지 안채에서 출입하면서 안마당을 향해 전개되는 생활공간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이다. 농작업, 집안대소사 등에 이용되던 마당에 생활용수가 들어오면서 세탁을 포함한 모든 것이 집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곧 공동생활영역의 필요성이 저하되고 주민교류도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림 5〉 평면사례:사랑채와 안채는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사랑채는 사랑마당을 향해 있었으나 현재는 사랑마당의 기능을 상실한 채 안채를 향한 공간으로 변화되어 있다(1996년 8월 실측)

5. 결 론

황전마을을 대상으로 고찰한 동족마을의 공간구성원리로 작용하는 수계, 가계 내 위계, 풍수관 등의 상호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풍수지리의 근저인 수계는 동족마을이 선정 되고 위치가 결정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2)수계는 마을이 성장하고 민가가 분파될 때 공간의 위계를 결정하는 요소였다. (3) 그러나 근대에는 전통적 동족마을의 공간형성체계와 질서체계를 부여하는 역할을 상실하고 다만 생활의 편의성을 위한 요소, 전통공간이 변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4) 그 결과 전통적 동족마을과는 달리 각 주호는 마을과 고립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마을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의 수계, 혈연, 가계 내 위계에 대체하여 보다 새롭고 실제적이며, 응집력 있는 주민의 연대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奉化郡誌, 奉化郡, 1987
2. 奉化文化遺蹟要覽, 奉化郡, 1991
3. 이필영, 마을신앙의 사회사, 웅진, 1994
4. 김광언, 한국주거의 민속지, 1989
5. 박서호, 사회와 공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환경대학원(博), 1993
6. 박명덕, 영남지방 동족마을의 분파형태와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博), 1991
7. 野村孝文, 朝鮮の民家, 學藝出版社, 1987
8.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1978
9. R. J. Lawrence, Housing Dwelling and Home, John Willy & sons Ltds, U.K. 1987

〈접수 : 1997. 11. 6〉